

담배 위해감축(Tobacco harm reduction) 전략



1. 위해감축이란?

■ 정의¹⁾

-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위해감축(Harm reduction)은 다양한 공중보건 개입을 통해 약물 사용과 관련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

- 담배 위해감축(Tobacco Harm Reduction, THR)은 금연을 할 수 없다면 궐련보다 덜 해로운 담배를 권장하여 흡연자의 건강 위험을 낮추고, 금연 가능성을 높이자는 주장

2. 담배업계의 9가지 위해감축 주장과 반박²⁾

■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과 반박

연번	주장	반박
1	[담배회사의 확증편향: 흡연자 입장 대변] “흡연자는 금연을 원치 않는다. 강력한 담배규제정책으로 이미 금연할 사람들은 금연에 성공하였고, 금연하지 못한, 니코틴 중독이 심한 흡연자들(골초, heavy smokers)에게는 대체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 흡연자는 금연을 원한다. 담배규제정책이 강화되면서 금연에 성공한 흡연자도 있고, 완전히 금연하지는 못했지만, 흡연량이 감소한 흡연자들도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담배규제정책과 금연 지원사업이 특정 흡연자들의 흡연을 더 심각하게(골초화) 만든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담배규제정책 수준으로는 흡연율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데 한계가 있어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 규제기본협약(FCTC)을 근거로 추가적인 담배규제정책 도입과 포괄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2	[담배제품 전환 가능] “일반담배(궐련) 흡연자들은 신종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다.”	“일반담배(궐련)와 신종담배(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흡연자가 일반담배(궐련)를 완전히 끊고 신종담배만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실에서는 여러 종류의 담배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자들은 계속해서 여러 종류의 담배를 사용하거나 다시 궐련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더 흔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담배사용 행태가 장기화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흡연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현명한 길이다.”

연번	주장	반박
3	[퀄런형 전자담배 95% 유해물질 감소, FDA 승인] “퀄런형 전자담배(가열담배)는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가열만 하므로 연기(smoke)가 아닌 에어로졸이 배출된다. 그래서 일반담배(퀄런) 대비 독성물질이 평균 95% 감소하였다. 퀄런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중 특정 브랜드는 미국 FDA로부터 ‘수정된 위험 담배제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퀄런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배출물 속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이 일반담배(퀄런) 대비 감소했다는 것과 퀄런형 전자담배(가열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다(유해물질 감소 ≠ 건강 위해 감소). 퀄런형 전자담배(가열담배)의 배출물도 연기다. 담배회사의 자체 연구결과에 따르면, 퀄런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이 일반담배(퀄런) 연기 속 독성물질보다 함량이 낮은 것도 있지만, 높은 것도 있다. 퀄런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이 인체에 덜 해롭다는 근거는 없고, 미국 FDA, 세계보건기구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 독성물질 노출량이 줄었다고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정비례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4	[담배 니코틴은 커피 카페인 수준이다] “일반담배(퀄런)가 건강을 해치는 이유는 연기 속 독성물질 때문이다. 니코틴은 중독만 유발할 뿐 그 자체가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아니다.”	“니코틴 그 자체로도 청소년, 임신부, 태아에게는 해로울 수 있다. 니코틴 중독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니코틴은 결코 안전한 물질이 아니고, 일정량 이상의 니코틴에 노출되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5	[차별적 세금 적용] “덜 위험한 담배에 대해서는 일반담배(퀄런)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세금을 낮춰서 덜 위험한 담배로 유도해야 한다.”	“담뱃세 인상 정책은 청소년 흡연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다. 청소년의 경우, 담배 가격에 민감하므로 만약 일반담배(퀄런)보다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낮아지면 신종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덜 위험한 담배제품’은 담배회사의 주장이자 마케팅 수단일 뿐 실제로 일반담배(퀄런)에 비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감소했다(risk modification)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런 경우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적용해야 한다.”
6	[담배회사도 책임을 다한다] “담배회사도 덜 위험한 담배제품 개발 및 확산을 통해 흡연문제 해결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고, 금연정책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담배회사의 담배위해감축(Tobacco Harm Reduction, THR) 전략은 담배산업 및 회사의 지속 가능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강화되는 담배규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7	[영국: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보조제] “영국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도 영국과 같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활용하여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활용하는 국가는 영국이 거의 유일하고 매우 예외적이다. 과거부터 영국은 담배회사와 협력하였고, 특히 ‘위해감축(harm reduction)’을 담배규제정책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었다.”
8	[액상형 전자담배 95% 덜 해롭다] “영국보건부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퀄런)에 비해 95% 덜 해롭다.”	“영국보건부의 주장은 객관성,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세월이 흘러 과학적 근거가 많이 쌓인 만큼 이제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최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입장을 새롭게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담배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보고서(ex. Royal College of Physician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보고서)는 활용을 자제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심근경색, 천식, 만성폐쇄성 폐 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기계 질환 유발과 관련성이 높고, 청소년의 흡연 시작 관문이 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9	[미국, 영국을 본받자] “미국 FDA의 수정된 위험 담배제품(MRTP) 제도, 세계보건기구(WHO)의 harm reduction 도입 필요성 강조, 영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보조제 사용 등 해외사례를 국내 담배규제정책에도 도입해야 한다.”	“WHO FCTC 내용 속 ‘위해감축(harm reduction)’은 담배회사가 주도하는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을 일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WHO가 주도하는 담배제품규제(tobacco product regulation)를 의미한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담배규제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영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보조제 활용은 WHO FCTC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내에서 본받아야 하는 제도 및 정책 방향이라고 결코 볼 수 없다.”

3. 쟁점 및 시사점

■ 담배의 종류나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담배는 해로움³⁾

- 어떤 형태의 신종담배라 하더라도 건강에 유해한 것은 사실이며, 담배 제품 간 유해성 정도를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움

■ 공중보건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권고할 수 있는 덜 해로운 담배는 없음³⁾

- 덜 해로운 담배가 더 나은 선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지 말아야 함
- 덜 해로운 담배라는 주장과 권유는 흡연자가 오히려 금연이 아닌 다른 종류의 담배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함
- 비흡연자 또한 덜 해롭다는 담배를 통해 담배 사용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 또한 건강 위해가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임
- 담배 종류에 따른 해로움을 비교하는 순간 담배업계의 전략과 주장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함
- 최선의 선택은 다른 종류의 담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담배 사용 중단과 예방임

참고 문헌

- 1)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2022). What is harm reduction?
<https://publichealth.jhu.edu/2022/what-is-harm-reduction>
- 2)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2021).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 분석연구(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217-01). 보건복지부.
- 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20). 담배, 어떤 형태이든 건강에 해롭다. 금연이슈&포럼 총권 제77호.